



2013년 1월 9일(수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11월중 소비자신용 7% 증가
- 2) 美 연준 제프리 래커 총재(리치몬드), 지나친 통화완화정책 경고
- 3) 미고용시장, 뒷문(Back Channel)채용 확산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중국-브라질,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예정
- 2) 중국, 전 세계 2위 쌀 수입국 부상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美법무부, 특허침해 판금 요청 남용 자제 성명 발표
- 2) 2014년 미국의 원유수입, 25년래 최저수준 전망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11월중 소비자신용 7% 증가

- 지난 1월8일(현지시간) 연준(FRB)은 지난해 11월중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161억 달러(계절조정치), 전월비 연율 7.0% 증가했다고 발표
 - 이는 소비자 신용이 지난해 10월중 6.2% 증가한 이래 두 달 연속 큰 폭의 증가세로 대부분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할부 같은 非리볼팅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
- 11월중 非리볼팅 부채는 152억 달러 급증한 반면, 리볼빙 부채인 신용카드 부채는 10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침
 -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크리스마스 쇼핑이 시작되는 첫 달인 11월에 신중한 씬씀이를 보였다는 의미
- 한편, 미국의 지난해 11월말 소비자 신용은 총 2조7,700억 달러로 연초 대비 5.2%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

2) 美 연준 제프리 래커 총재(리치몬드), 지나친 통화완화정책 경고

- 지난 1월8일(현지시간)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(FRB)의 전례 없는 통화 완화 정책이 올해 이후 인플레이션 급증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
 - 그는 연준(FRB)내 대표적 매파 위원으로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기업·산업·정치 교육 위원회 연례회의 강연에서 연준(FRB)의 통화 정책 기조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포함
 - 통화정책으로 실물 경제를 과도하게 부양하려는 시도는 인플레이션을 끌어 올리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
- 그는 2014년에는 인플레이션 상향 위험이 구체화되고 향후 수년안에 연준(FRB)의 장기인플레이션 목표인 2%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

- 한편,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 당시 연준(FRB)의원들은 양적완화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모기지담보부증권(MBS), 미 국채 매입의 축소시기를 논의, 이 중 일부는 연내 중단 및 축소를 주장한 바 있음

3) 미고용시장, 뒷문(Back Channel)채용 확산

- 지난 1월8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 저널(WSJ)은 최근 고용시장이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기업들이 구인광고를 통한 공개 채용보다 내부 조사와 추천에 의한 비공개 채용인 뒷문(Back Channel) 채용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도
 - 이러한 비공개 채용은 구직자들을 좌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 - 하지만, 기업들이 공개적인 광고를 통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의 고용이 점차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
- 한편 지난 2009년에 <숨겨진 고용시장을 열어라>를 공동 저술한 취업 전문가 던칸 매티슨은 이러한 숨겨진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각종 통계와 설문조사를 분석해보면 현재 50%가량의 채용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
- 특히 숨겨진 고용시장의 규모는 경제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둠
 - 경기가 호황일 때는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공개적인 광고를 통해 직원을 선발하는 성향이 두드러짐
 - 반면, 불황일 때는 구직자가 많아 기업들은 뛰어난 인력을 확보할 기회가 많아 굳이 공개적으로 채용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짐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중국-브라질,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예정

- 지난 1월8일(현지시간) 브라질 중앙은행은 브라질과 중국이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맺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
 - 이에 따라 협정서 서명은 다음 주 내로 이뤄지며 만기와 이자율 등도 수 주 내에 결정될 예정
 - 금번 결정을 위해 지난 1월6일(현지시간) 알레산드리 톰비니 브라질 중앙은행장과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이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(BIS)에서 만나 협정의 세부사항을 조율한 바 있음
- 이번 협정은 양국간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양국은 이미 지난해 6월 양자간 무역거래를 위한 통화스와프 기본 협정을 체결한바 있음

2) 중국, 전 세계 2위 쌀 수입국 부상

- 지난 1월8일(현지시간) 美농업부는 중국이 지난 2012년중 총 260만 톤의 쌀을 수입해 전 세계 2대 쌀 소비국으로 급부상했다고 발표
 - 이는 지난 2011년 수입된 쌀 57만5천 톤 대비 무려 네 배가 증가한 수치
- 중국은 지난 20년간 국내 생산된 쌀로 소비를 해결했지만, 소비량이 점점 커지자 지난 2011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한 바 있음
 - 이에 따라 중국은 쌀 수출국에서 쌀 최대 소비국으로 전환
-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쌀 소비량 증가로 인해 최대 쌀 소비국이 될 경우 전 세계 쌀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, 가격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美법무부, 특허침해 판금 요청 남용 자제 성명 발표

- 지난 1월8일(현지시간) 美법무부는 특허상표국(USPTO)와 함께 공동 정책 성명을 발표, 모바일 기기 등 전자업계에서 표준핵심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자사 특허 침해를 이유로 경쟁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특수한 상황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발표
 - 법무부와 함께 미 반독점 규제를 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(FTC)도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표준핵심특허 침해가 판매금지 대신 금전적으로 배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음
- 아울러 미국내 제품 수입 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국제무역위원회(ITC) 역시 공공의 이익을 감안해 판매금지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미 당국의 입장이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됨
 - 전문가들은 금번 성명은 미국 행정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사법부와 ITC 판사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

2) 2014년 미국의 원유수입, 25년래 최저수준 전망

- 지난 1월9일(현지시간) 美에너지정보국(EIA)은 내년도 원유와 석유제품 등 액체 연료 순수입량이 하루 평균 600만 배럴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
 - 이는 지난 19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2004~2007년 사상 최고였던 1,200만 배럴의 절반 수준
- 이 같은 원유 수입량 감소는 최근 미국내 노스다코타와 텍사스주 등지에서 수압식 시추방식으로 셰일가스 생산량을 크게 늘린데 따른 예측
 - 지난 2008년중 하루 평균 500만 배럴로 사상 최저였던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643만 배럴까지 증가, 2014년에는 800만 배럴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